



양돈산업, 한·미 FTA 타결로 가장 큰 피해

- 돈육 냉장 10년, 냉동 7년내 관세 철폐
- 美, 쇠고기, 삼겹살 국내 시장 점령 우려
- 양돈협, 양돈산업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강력 촉구

- 홍보부 -

한·미 FTA(자유무역협정)협상이 지난 2006년 2월 협상출범 선언 이후 지난 4월 2일 타결됨에 따라 양돈산업을 비롯한 국내 축산업은 궁극적으로는 미국 축산물과 무관세 경쟁 시대에 진입함과 동시에 국내 양돈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양돈업계 파장이 예상된다.

또 이와 함께 한·미 FTA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가 이어져 미국산 쇠고기와 삼겹살의 수입물량이 증가될수록 우리 문화 정서상 국산 돼지고기 시장만 잠식하는 현상이 가속될 것으로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1. 한·미 FTA 양돈분야 협상 결과

이번 협상에서 돼지고기는 단계적으로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미 FTA 돼지고기 부문 타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냉장 삼겹살과 갈비, 목살은 10년 내 관세 폐지하고 셰이프가드(SG)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냉장육(도체와 이분도체, 전·후지), 냉동육, 식용설육, 돼지고기 가공품에 대해서는 2014년 1월1일 관세 폐지, 소시지는 5년후 폐지하기로 했다.

<표 1> 양돈분야 FTA 협상결과

품 목	협 상 결 과
돼지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장 삼겹살과 갈비, 목살은 10년내 관세 폐지, 10년차까지 SG 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G 발동 물량 : 8,250 13,938톤(매년복리 6% 증량) - SG 발동 세율 : (1~5년차까지) 실행세율 100% (6~10년차까지) 70 50%(매년 5%씩 삭감) • 냉장육(도체와 이분도체, 전·후지), 냉동육, 식용설육, 돼지고기 가공품 2014. 1. 1일에 관세 폐지(7년 폐지와 유사) • 소시지는 5년 폐지

<표 2> 국내외 가격비교(관세포함)

(단위: 원/kg)

품 목 명	양허 세율	국내 가격(A)	미산 가격(B)	국제 가격(C)	A/B	B/C
냉동삼겹살	25.0%	7,056	4,165	4,505	169.4%	92.5%
냉장삼겹살	22.5	9,488	6,400	6,200	148.3%	103.2%
목살(냉동)	25.0	6,500	3,676	4,041	176.8%	91.0%
갈비(냉동)	25.0	6,120	4,329	4,823	141.4%	89.8%
전지(냉동)	25.0	4,140	3,716	3,463	111.4%	107.3%
후지(냉동)	25.0	3,380	3,868	3,148	87.4%	122.9%
등심(냉동)	25.0	4,380	2,964	3,817	147.8%	77.7%

※미국산 및 국제가격은 2005년 11~12월 평균 수입단가 × 137%(관세·이윤 등)

2. 양돈산업 가장 큰 타격 예상

농림부가 발표한 축산부문 영향 분석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FTA 협상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시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관세가 연차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국내 가격 및 자급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돼지고기의 경우 7~10년에 걸쳐 철폐되어 단기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산 돼지고기를 상당량 대체하여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산 돼지고기 및 쇠고기의 경쟁심화로 삼겹살 등 구이용 위주로 가격하락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하는 한편 돼지고기 수입시장 역시 캐나다, 벨기에, 칠레 등에서 미국산으로 수입선의 전환을 예상했다.

가. 양돈업계 FTA 반대 한목소리

양돈업계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단기적



▲ 한·미 FTA 협상 종료가 임박했던 지난 3월 30일 오후 청와대 앞 청운동에서 열린 한·미 FTA 협상저지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에서 김동환 양돈협회장을 비롯한 이병모 부회장, 정종극 부회장, 하태식 부회장 등 회장단은 FTA 협상저지를 촉구하는 삭발식을 거행했다.

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정부의 분석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이번 협상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산업은 국내 양돈업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양돈협회는 이와 관련하여 '국내양돈산업 말살하는 한·미 FTA를 우리 양돈인은 강력히 반대한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따른 피해액을 분

석하는 한편 양돈업계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11일에는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한·미 FTA 비준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양돈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번 협상의 ‘전면 무효’ 선언과 함께 구체적인 FTA지원 대책을 법률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나. 美, 쇠고기, 삼겹살 국내 시장 점령 우려

특히 양돈협회는 현행 관세 하에서도 2006년 기준 돼지고기 수입량은 21만톤, 이 가운데 미국산이 30%를 차지하는데, 향후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자급률 하락으로 인해 양돈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미 FTA 체결로 돼지고기 관세가 현재 냉장 22.5%, 냉동 25%에서 매년 낮아질 경우 수입 돼지고기의 수입은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저가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재개될 경우, 한우는 이미 고급육으로 특화되어 있어 중저가인 국내산 돼지고기 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함으로 인해 국내 돼지고기 가격 폭락과 소비 감소 초래를 양돈협회는 예상하고 있다.

<표 3> 14개 도매시장의 돼지 가격, 미산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량

(단위: kg/원, 지육가격)

연 도	평균 가격	전년 대비	'03년 대비	미산 쇠고기 수입량(톤)	미산 돼지고기 수입량(톤)
2001	2,624	-	-	95,671	1,854
2002	2,648	+9.1%	-	186,630	4,697
2003	2,474	- 6.6%	-	199,409	5,150
2004	3,488	+41%	+41%	-	12,884
2005	3,735	+7.1%	+51%	-	43,155

이와 관련하여 한국육류수출입협회는 돼지 냉장육 관세(22.5%)를 철폐할 경우 미산 냉장 삼겹살 가격은 kg당 6천990원에서 5천620원으로 19.6%가 하락하며 냉동육은 3천930원에서 3천160원으로 19.6%가 떨어질 것으로 분석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관세를 없앨 경우 미국 삼겹살 가격은 국산에 비해 냉장육의 경우 현재 65.1%에서 52.3%로, 냉동육은 45.7%에서 36.7%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04년 기준 국내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은 kg당 6.22달러로 미국 5.24달러에 비해 18.7%가 높은 가운데 삼겹살의 경우 12달러로 미국의 3.78달러의 3.2배가 비싸다고 밝혔다. 특히 목심은 국산 9.5달러로 미국 3.62달러보다 2.6배 높게 나타나 국내 양돈산업은 미국산과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시장개방시 수입감소액이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된다.

다. 양돈산업 가장 큰 타격 예상

양돈협회는 무엇보다 양돈산업은 전체 농림업 생산액의 2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축산업 중 1위인 주요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에서



▲ 양돈협회 각 지부에서도 현수막을 게시하고 한·미 FTA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돼지고기는 최장 장기 관세 철폐기간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5~10년으로 설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냉동육 등 대부분의 품목이 한·미 FTA 발효 기준일이 아닌 무조건 2014년 1월 1일에 관세가 철폐되어 타 축종에 비해 양돈산업이 가장 빨리, 가장 큰 타격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더욱이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돼지고기와 쇠고기 수입물량이 증가 될수록 우리 문화 정서상 돼지고기만 잠식되는 현상이 가속되어 양돈업은 샌드위치로 전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주효하다. 외식산업 분야에서 미국산 쇠고기와 무관세 수입 돼지고기의 비중이 높아짐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산돼지고기 시장 취약성이 현실로 들어나는 등 양돈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양돈산업 피해 예상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양돈협회에서는 한·미 FTA 체결이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 2006. 6)를 통해 한·미 FTA 체결시, 국내산 돼지고기 생산액이 최대 1조869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시, 양돈농가의 60%가 경쟁력 상실로 폐업 할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소규모인 1,000두 미만 양돈농가에서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여 양돈농

<표 4> 관세변화에 따른 돼지고기 감소액 추정

관세변화	미국산 쇠고기 수입가격 변화	미국산 쇠고기와 교차탄력성	국내산 돼지고기 시장변화		
			가격변화 (%)	생산변화 (%)	감소액 추정 (억원)
관세 100% 감축	28.6% 하향	0.10	16.97	5.50	8,243
		0.15	19.67	6.38	9,556
		0.20	22.38	7.26	10,869
관세 50% 감축	16.7% 하향	0.10	14.72	4.77	7,149
		0.15	16.29	5.28	7,915
		0.20	17.87	5.79	8,681

자료 : 한·미 FTA 체결이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2006.6 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

주 :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 100% 감축을 가정하였으며 미국산 돼지고기의 교차탄력성 0.26%를 가정하였다.

가의 위기감을 고조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양돈산업은 수입시장에서 밀리고 가축분뇨 처리 및 사료가격 폭등, 소모성질환 등 3중고로 축산업 중 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여, 정부의 양돈업에 대한 피해보상 및 경쟁력 제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타 축산부문 타격 내용

- 쇠고기 : 15년 폐지, 15년차까지 SG 발동
- 닭고기 : 통닭, 냉동 12년, 냉장육 냉동, 닭고기 가공품 10년 폐지
- 꿀 : 천연꿀 현행관세 유지, 인조꿀, 로얄제리, 벌꿀제품 10년 폐지
- 낙농품 : 탈지분유·전지분유·연유는 현행 유지, 기타 혼합분유, 밀크와 크림 치즈 등은 10~15년 관세 폐지
- 기타 육류 : 오리고기-냉장 10년, 냉동 12년 관세 폐지, 산양·면양고기 - 10년 관세 폐지, 칠면조 고기 - 7년 관세 폐지, 녹용·녹각 : 15년 관세 폐지

양돈